

# 8년 남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여부 관심

## ■월성원전 수명 연장 취소 판결...한빛원전은?

### 2025년 설계수명 완료...한수원은 10년 연장 운전 방침

### 전문가들 “노후 원전 대대적 보완해도 연장 쉽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노후화된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6개의 발전소를 가동 중인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25년 1월과 10월 한빛 1·2호기의 40년 설계수명이 각각 만료된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본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통해 10년간 계속 운전한다는 방안이지만 지역 여론과 판결문을 접한 원자력전문가들의 진단을 고려하면 수명연장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판결문을 보면, 재

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에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령에서 정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결재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등 원안위의 심의·의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도 절차적 위법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됐음에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바 있는 캐나다 최신기준을 월성 원전 1호기의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후 수명연장을 앞둔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심사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선 최신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전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지역주민 등 국민 입장에서 노후 원전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

이정은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기계기술사)는 “스리마일(미국),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원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원전 안전성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법원 판결은 법에서 정한 대로 안전에 관한 최신 기술기준을 평가의 잣대로 삼으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원안위의 심사에서, 또는 법령에서 향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판결 외

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어 영광 한빛 1·2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내놨다.

영광주민과 광주전남 환경단체도 기본적으로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반대를 수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히며 있어, 원안위의 항소 결정에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년 발전소 원자력에서 쏟아져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처분할 곳이 마땅찮은 점도 한수원 측 수명연장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 후 들어설 차기 정부의 결정에 따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빛 1·2호기를 비롯해 가동중인 국내 원전 25기 중 8기의 수명이 2023~2027년에 만료된다. 원전 수명 연장 사례는 고리 1호기와 이번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월성 1호기 등 2건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박철환 해남군수 2심도 징역 1년6개월

### ‘근무평정 조작’ 혐의...형 확정 땀 직위상실

공무원 인사 근거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박 군수에게 2심 법원도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8일 직권남용관리대상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관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해남군 비서실장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근무 평정 제도 간극과 인사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로 인해 해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군정 신뢰도 하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2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2~2013년 박씨로부터 받은 돈(2000만원)은 투자금 성격으로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박 군수는 지난해 5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으며, 해남군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복구에도 ‘평화의 소녀상’

### 내달 1일 건립추진위 발족

광주 복구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추진된다.

광주 복구회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 복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복구회회는 복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정달성)와 협의해 시민단체·종교단체·정당 등

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음 달 1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

김상훈 복구회회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소녀상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영차영차~ “물에 빠진 황소를 구하라”



지난 4일 오후 3시30분께 보성군 조성면 용전리 하천에서 조성파출소 직원과 보성소방서 관계자, 마을 주민들이 진흙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황소를 꺼내려고 밭줄을 잡아당기는 모습(왼쪽)과 물로 빠져나온 황소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장면. 구출된 황소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김모(70)씨의 축사에서 빠져나가 파출소 전직원이 수색에 나섰고 마을 방송까지 했음에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하천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 주민과 합세해 1시간여 만에 구출작전에 성공했다. <보성경찰 제공>

## 광주·전남 학교 성폭력 3년간 50건

### 초등생 등하굣길 피해 많아

#1. 전남의 모 여자중학교 농구부 감독이자 교사 A(36)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농구부 여중생 4명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전지훈련기간 모델이나 학교 관사로 운동부 학생 B(15)양을 포함한 여중생 4명을 불러 목을 주무르게 하는 등 각각 2~14회 추행했다. 또 여중생 6명을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채 7m 가량 전진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 남녀공학인 고교의 체육교사 C씨는 4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 D군을 불러 성기를 만지며 “성기가 멋있고 큰 것 같다. 물건이 좋아 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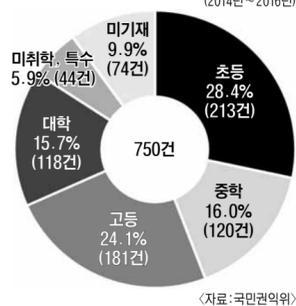
생들이 좋아 하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성추행을 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광주·전남지역 학교 성폭력 사건은 50건에 달했다. 광주 20건, 전남 30건이다. 전국적으로는 750건이었다. 학교 성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2016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광주는 20건(광주시교육청 18건, 광주시 2건), 전남은 30건(전남도교육청)이었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에서 총 213건(28.4%)의 성폭력이 발생했고,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 ■국민신문고 접수 학교급별 성폭력 현황 (2014년~2016년)



118건(15.7%) 등의 순이었다.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등으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학생’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학생’ 254건(33.9%), ‘교직원→교직원’ 59건(7.9%), ‘일반인→학생’ 43건(5.7%) 등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이 6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안보다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밖의 장소가 더 많았다.

학교 성폭력 발생 관련 민원은 2014년 193건, 2015년 268건, 2016년 28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아버지 트럭 몰던 고교생 주택 돌진 사망

고교 3학년생이 아버지 몰래 트럭을 몰다 길가 주택을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밤 10시32분께 무안군 무안을 성동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모(19)군이 운전하던 1t 트럭이 인도를 넘어 우측에 있는 주택으로 돌진, 주택의 창고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정군이 크게 다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날 주택에는 오모(44)씨와 배모(여·73)씨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창고와 떨어진 방에 있었던 탓에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고등학교생인 정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고 이날 아버지 소유의 1t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무안=임동원기자 idh@kwangju.co.kr

## “왜 상향등 켜” 주먹질 30대남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왜 상향등 켜” 주먹질 30대남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왜 상향등 켜” 주먹질 30대남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가슴을 때리고, 같은 날 새벽 5시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공무원집행을 방해한 혐의.

“경찰은 “전씨가 강씨를 폭행하고, 경찰을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과 공무원집행 방해 등 전과 17범인 것으로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대 학 원	과 격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22(수) 오전 10시~18시
		신학과(Th.M.)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22(수)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22(수) 오전 10시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2017. 2. 22(수) 오전 10시
		실용음악학과(M.A.)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